



B O A R D O F S T U D I E S
NEW SOUTH WALES

2011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Korean Background Speakers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and Part B)

Transcript

Familiarisation Text

기자: 이러한 채팅 언어의 사용을 십대의 문화 현상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 채팅 언어 때문에 세대 간에 대화가 잘 안되고 또 채팅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문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Question 1

경수: 진희야, 나 오늘 한국어 학교에서 민철이 때문에 너무 너무 angry 했어. 민철이는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다고 자기한테 존대말을 쓰라고 해.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면서. 그게 한국식이라는 거야.

진희: 꼭 한국식이라기 보다는 예의 범절을 지키고 한국의 전통을 따르자는 의미라고 난 생각해.

경수: 민철이는 오늘 토론 시간에도 나이가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정하고, 내가 조금만 틀린 말을 하면 꼭 틀렸다고 하고 진짜 짜증나.

진희: 너는 ‘장유유서’도 모르니?

경수: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잖아.

진희: 경수 너 장유유서 뜻은 제대로 알고 있네. 어쨌든, 동방예의지국인 한국 사회에서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 아닐까? 게다가, 네가 한국어 틀리는 게 어디 한 두개니? 너는 호주에 온지 5년 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한테 영어를 섞어 쓰니? 그나마 민철이가 널 생각하니까 틀린 거 지적해 주고 하는 거야.

경수: Oh, no! So funny!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면 의미 전달이 더 정확해지고 easy 하잖아. 그리고 친구 사이에 무슨 형, 동생이야. 호주에 살고 있으면 호주식을 따라야지. 내가 영어를 섞어 가며 말을 하면 뭐 민족성이 없다고 야단을 치기까지 한다니까. 다문화 국가에서 꼭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도대체 뭐야.

진희: 경수야, 그래도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의 문화를 따라야 하지 않겠니?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민철이의 방식이 좋지 않을까? 호주에 있다고 해서 한국 문화를 멸시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 같아. 너 얼마 전에 너희 할머니한테 ‘안녕’이라고 인사하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존대말 쓸 줄 모르니?

경수: What? 야, 너도 날 무시해? I feel terrible today.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B

Question 2, Text 1

다음은 11월의 구인 광고입니다.

시드니 시티에 위치한 ‘하나 동물 병원’에서는 동물 관리 보조 요원을 모집합니다. ‘하나 동물 병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환경 보존 모범 업체로서 인간과 동물과 환경이 하나라는 것을 기업의 기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동물 병원’은 시드니 동물원과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13년 동안 호주에 있는 20개 고등학교에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산학 협동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물 관리 보조 요원의 주 업무 내용은 아픈 동물 돌보기, 동물 목욕 시키기입니다. 동물 운동 시키기를 위해 주 1회 야외 근무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고객 상담과 관리 업무 보조 일도 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동물 관리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면 우대합니다.

면접 전 150단어 정도의 한국어로 자기 소개서를 ‘하나 동물 병원’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보내야 합니다. 1차 자기 소개서에 의해 심사를 한 후 합격자 통보를 하게 되며, 2차 면접 시 이력서와 재학 증명서 외 기타 증명 서류들을 지참하기 바랍니다. Point form으로 쓰여진 자기 소개서는 무효 처리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한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하나 동물 병원’에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B

Question 2, Text 2

- 학생: 안녕하세요. 선생님. 12학년 이정우입니다. 시티에 있는 ‘하나 동물 병원’에서 모집하는 동물 관리 보조 요원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 상담 선생님: 그래. 음, 여기 ‘하나 동물 병원’에서 보내온 구인 광고 추가 자료가 있구나. 자격 요건을 명시해 두었네. 동물 애호 정신, 기초 컴퓨터 사용 능력 중급 이상, 10학년 졸업 이상의 학력, 특히 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구나. 그런데, 동물 관리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해본 경험은 없니?
- 학생: 네, 7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름 방학 때마다 동물 보호 센터에서 자원 봉사를 했었어요. 10학년 때는 동물원에서 동물 사육사 보조로 일하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동물 애호가 협회에서 선정한 상을 받기도 했어요.
- 상담 선생님: 와, 너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혹시 집에서 동물을 길러본 적은 있니?
- 학생: 네, 어릴 때부터 동물을 너무나 좋아해서요. 다섯 살 때부터 고양이, 토끼, 게다가 도마뱀도 길러 봤어요. 지금도 집에서 거북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 상담 선생님: 자기 소개서에 그런 내용도 포함 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정우야, 네가 이 일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니?
- 학생: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 병원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앞으로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 상담 선생님: 나도 어릴 때부터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청소년 보호 단체에서 보조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단다.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정우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구나.